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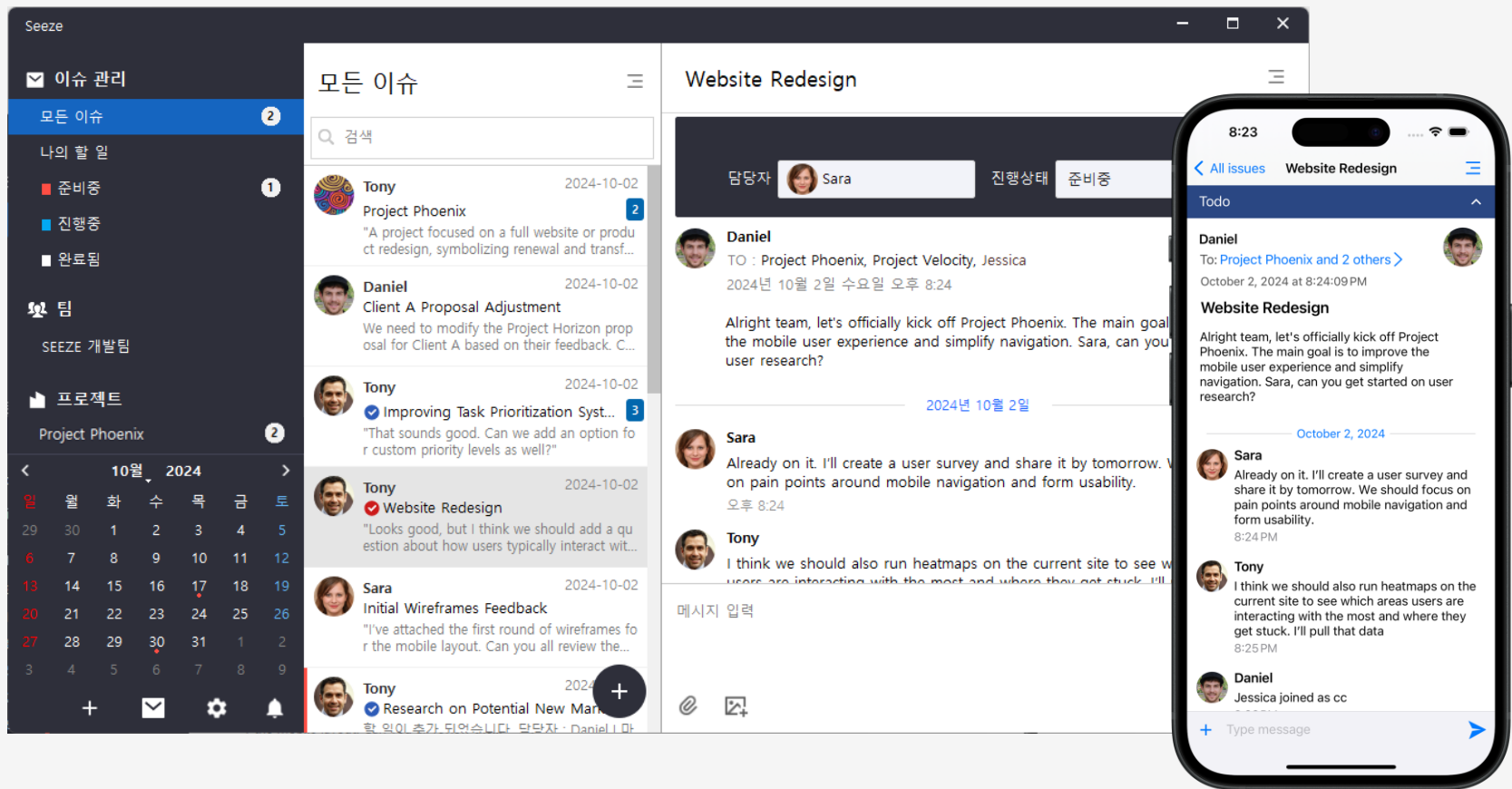
채팅 메시지에서 업무로의 혁신적인 전환



작성자 : 이상규 (guru@seeze.net)

기존의 채팅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

Seeze는 **"이슈 중심의 채팅"**과 **"Task(업무)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시도입니다.



기존 채팅 도구의 한계, "왜 Seeze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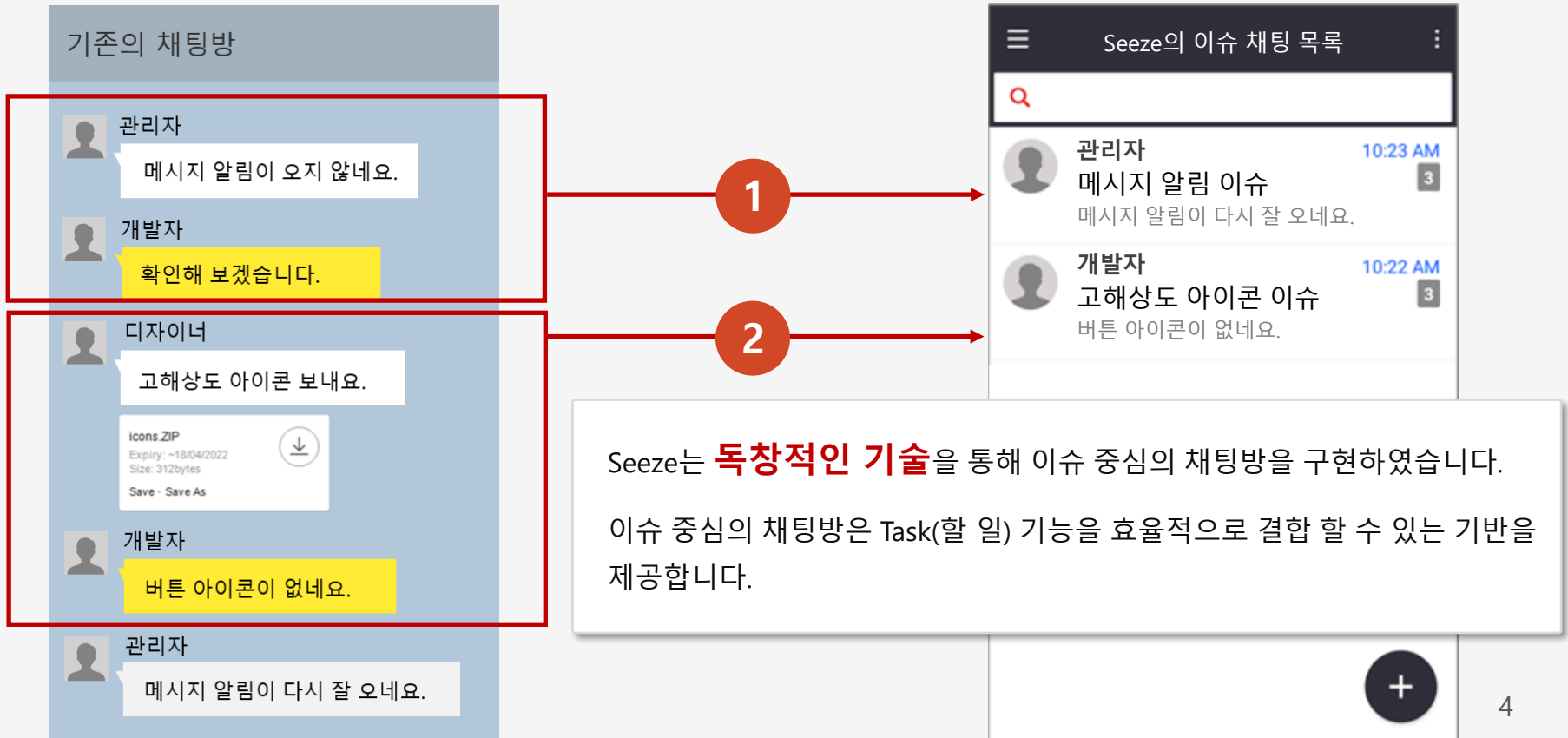
- 1 중요한 업무 대화가 끝없이 올라오는 채팅 속에서 묻혀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팅방에 **다양한 이슈들이 섞여 있어**, 과거 메시지를 찾거나 이를 실제 업무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2 업무(Task)별로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싶은데, 기존 채팅 도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채팅에서는 **이슈 관리 및 추적**이 어렵습니다.
- 3 과거 대화를 검색했지만, 필요한 내용을 찾기 어렵거나 연결이 끊어진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업무에서는 **업무 히스토리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채팅 메시지는 **휘발성이 강해** 정리된 형태로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채팅 도구들은 **업무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Seez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슈 중심의 채팅으로 이슈에만 집중

Seeze는 **하나의 이슈가 하나의 채팅방**으로 관리되어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대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채팅방 내 **이슈가 뒤섞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채팅 메시지를 실행 가능한 업무로 전환

1 Seeze는 채팅 메시지가 단순한 텍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팅에서 언급된 이슈를 즉시 **“실행 가능한 업무(Task)”**로 전환한 후, 담당자, 마감일, 우선순위 등을 설정해 이슈가 해결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도록 합니다.

Seeze는 채팅 메시지를 업무(Task)로 전환하여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집니다.

여러 이슈로 뒤섞인 기존의 채팅 시스템에서는 이슈를 추적할 방법이 없으나,

Seeze는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이슈를 추적하고 관리”** 합니다.

2

The screenshot shows a chat interface titled "Seeze의 이슈중심 채팅방". It displays a conversation between Kimbu (김부장) and Lee-dae-ri (이대리). Kimbu asks, "납품계약 누가 진행할 건가요?" (Who will handle the delivery contract?). Lee-dae-ri responds, "제 담당입니다." (It's my responsibility). Kimbu then says, "할 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A task has been added). A system message box appears: "담당자: 이대리 | 마감일: 2025.04.20 | 우선순위: 높음" (Assignee: Lee-dae-ri | Deadline: 2025.04.20 | Priority: High). Lee-dae-ri responds, "계약서 첨부합니다." (Attaching the contract). A final system message box states: "진행상태가 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The progress status has been changed to complete).

채팅 메시지의 아카이빙

1

“아카이빙 요소”란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며, 필요할 때 쉽게 검색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또는 속성을 말합니다.

Seeze는 이슈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채팅에 아카이빙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혁신입니다.

이를 통해 Seeze는 **체계적인 데이터 보관과 검색**이 가능하며, **업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채팅형 업무 협업 솔루션입니다. (이슈 중심의 채팅 = 업무 아카이빙)

2

기존 채팅 메시지와 차이

기존의 채팅

- 아카이빙 요소가 없는 휘발성 메시지
- 이슈 관리가 되지 않는다.

사라지는 메시지, 잊혀지는 정보

Seeze의 채팅

- 아카이빙 요소를 가진 메시지
- 이슈 트래킹 및 관리 용이 하다.

이슈 관리가 용이한 체계적인 정보

Seeze 만의 차별화된 주요 포인트

Seeze는 단순한 채팅이 아닌, 업무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기존 채팅 도구	Seeze의 채팅
대화방식	여러 개의 주제가 하나의 채팅방에서 섞이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이슈 채팅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 주제가 섞이지 않습니다.
업무(Task) 관리	Jira나 Asana 같은 별도의 Task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채팅방 내에서 직접 Task 생성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Task의 처리 과정이 채팅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대화 흐름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면 과거 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되어 과거 대화도 쉽게 확인 가능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빙	검색이 어렵고 대화의 맥락이 단절됩니다.	이슈 단위로 모든 대화와 Task가 연결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전 - "Seeze가 만들어가는 업무 환경"

Before (기존 방식)

여러 주제가 뒤섞여 흐름이 끊깁니다.

중요한 업무(Task)가 채팅 속에서 묻혀버리고, 담당자가 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대화를 검색해도 단편적인 메시지만 나와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fter (Seeze를 도입한 사무실의 모습)

- 1** 하루의 시작 (일정 체크)
Seeze의 **달력**에서 마감이 임박한 이슈들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놓치는 업무가 없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새로 올라온 이슈를 살펴보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 2** 업무 진행 중 (실시간 협업)
작업을 진행하던 중, 마감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Seeze의 **이슈 채팅방**에서 바로 상사와 논의하여 마감일을 조정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해 다른 팀의 담당자를 초대하고,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 3** 업무 완료 (자연스러운 기록)
작업이 완료되어 **Task 상태**를 **완료됨**으로 변경합니다.

채팅방에 모든 논의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므로, 별도의 보고 없이도 상사는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eze의 마켓 포지셔닝 전략

1 목표 시장 및 고객

Seeze는 업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업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협업 과정에서 정보 구조화가 필요한 기업
- 프로젝트와 업무 기록이 중요한 기업
- 기존 협업 도구(Teams, Slack)에서 비효율을 느끼는 기업

2 차별화된 데이터 가치로 진입 장벽 형성

Seeze의 데이터는 단순한 채팅 기록을 넘어 업무 히스토리로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유사 서비스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 합니다.

3 결론

Seeze는 휘발성 데이터 문제를 극복하고 이슈 중심 데이터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규모 채팅 시장에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독과 구축으로 만드는 수익 모델

1 구독형 모델 (Saas)

1.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익 구조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용료를 지불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한다.

2. 프로모션을 통한 시장 확대

기업 또는 팀 단위 고객 유치 시 한정된 프로모션 제공으로 초기 진입 유도한다.

2 구축형 모델

초기 도입 비용을 낮게 책정하여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 한다.

무상 AS을 제거 하고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포함한 월 운영 비용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 한다.

팀

Seeze는 **1인 컴퍼니**의 창업자가 개발한 **채팅 기반의 업무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상규 | CTO 겸 창업자

- 26년 차 개발자로서 최근 10년 이상 채팅을 비롯한 협업 솔루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버부터 모바일, 데스크탑까지 모두 창업자가 개발하였으며,
모바일, 데스크탑 버전들은 네이티브로 개발되어 빠른 성능과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합니다.

Seeze는 **함께 성장할 투자자 또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스크린 샷으로 보는 Seeze의 구조

1 Seeze는 3단으로 구성됩니다.

- 1단은 이슈를 유형 별로 정의한 일종의 폴더로서, **나의 할 일**, **팀**, **프로젝트**, **마감일**로 구성됩니다.
- 2단은 1단에서 선택된 유형에 따른 이슈의 채팅 목록을 보여줍니다. **팀**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팀** 또는 **프로젝트**의 이슈들의 채팅 목록을 보여 줍니다. 3단은 2단에서 선택한 이슈의 채팅방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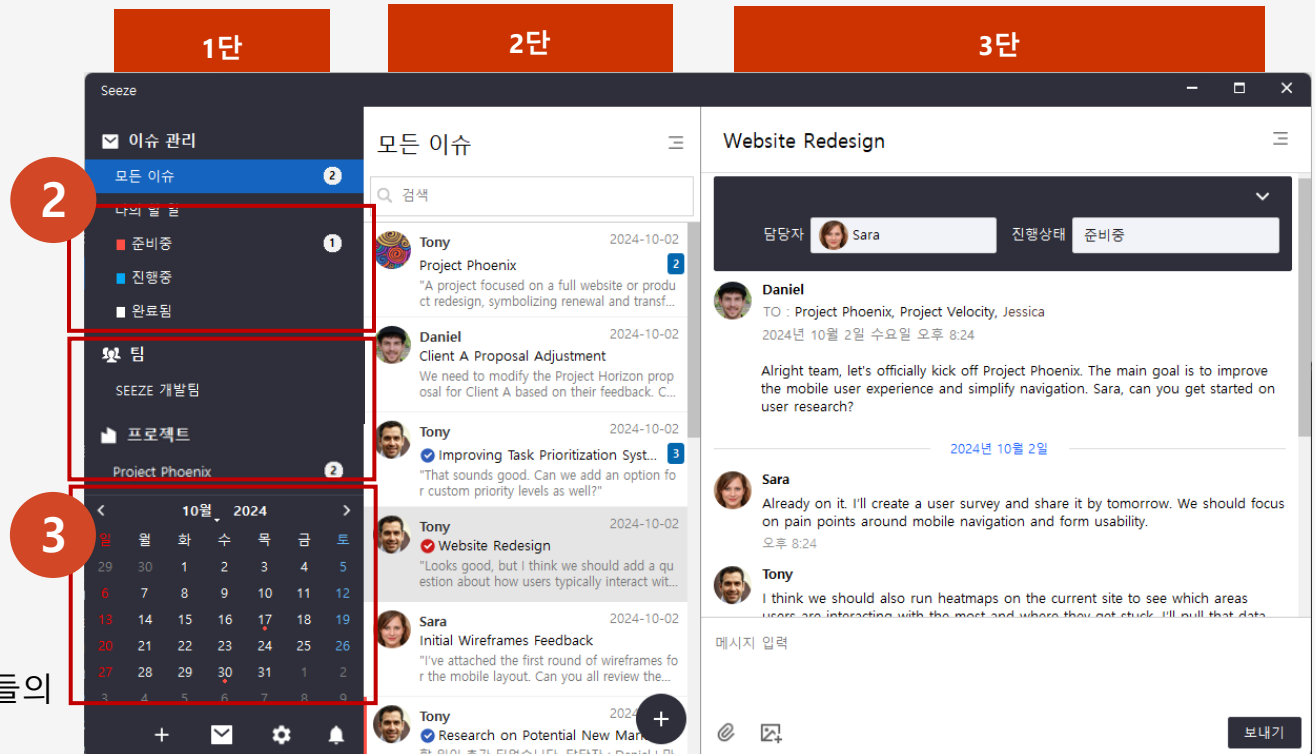
나의 할 일은 내가 담당자로
지정된 이슈들을 보여 줍니다.

할 일은 상태에 따라서

- 준비중
- 진행중
- 완료됨으로 나누어 집니다.

달력은 마감일이 있는 이슈를
빨간색 점으로 보여 줍니다.

해당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를 마감일로 지정된 이슈들의
채팅 목록을 보여줍니다.



스크린 샷으로 보는 Seeze의 Task

1

이슈 중심의 채팅은 이슈 하나가 채팅방 하나가 됩니다.
"신규 기획안 이슈"가 제목인 이슈 중심의 채팅방을 보여 줍니다.



관리자

오후 1:21

✓ 신규 기획안 이슈

담당자 : 기획자 | 마감일 : 2024-12-27 |
우선순위 : 보통

2

채팅방에 Task(할 일)가 등록되어 있다면,
채팅방 상단에 **담당자 | 진행상태 | 만기일 |
우선순위** 등의 Task 정보 패널이 걸리게
됩니다.

Seeze의 Task는 첨부 형태로 관리됩니다.

업무 진행중 Task가 필요한 경우, 채팅방의
햄버거 아이콘을 선택하여 할 일을 추가
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Task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채팅 기록으로
남습니다.



스크린 샷으로 보는 Seeze의 이슈 생성

1 Seeze는 “기획자 + 개발팀” 또는 “개발팀 + 디자인팀” 등 특정 조합으로 협업 대상을 정확히 지정 합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담당 멤버들에게 정확히 이슈를 전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 하여 관련이 없는 멤버가 필요치 않은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새로운 이슈' (New Issue) form. The '받는사람:'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contains '기획자' and '개발팀'.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field to the '보낸사람' section of the '이슈 관리' sidebar, which lists '관리자', '기획자', and '개발자'.

이슈 관리

- + 할 일 추가
- 이슈 삭제
- 보낸사람
 - 관리자
- 받는사람
 - + 참조인(cc) 추가
 - 기획자
 - 개발자

새로운 이슈

받는사람: 기획자 × 개발팀 × +

제목

할 일

담당자: 담당자 +

마감일: 마감일 +

우선순위: 보통 ▼

보내기

Seeze는 현재 오픈 베타 중이며, www.seeze.net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Seeze를 함께 성장시켜 나갈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